신남방 정책 업그레이드한다

정부, 정상회의 계기로 경제 성장 예고

정부가 다음주부터 부산에서 5박 6일간 예정돼 있는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新)남방 정책을 한층 업그레이드(upgrade)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20일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 정책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아세안 국가의 잠재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아세안 시장 내 총 인구는 6억5000만명에 달해 미국(3억 2700만 명)이나 유럽연합(EU, 5억 1300만 명)을 앞선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지난해 기준 2조900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2배가량에 이른다. 1990~2018년 새 아세안 무역액은 3100억 달러에서 2조8600억 달러로 9배 넘게 불어났고, 같은 기간 아세안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액(FDI)은 128억 달러에서 1487억 달러로 12배 증가했다. 세계 경제가 3.9% 성장하는 동안 아세안 국가들은 5.3%의 성장률을 보이며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에 처음으로 대화 관계를 수립한 후 핵심 경제 협력 파트너로 발전했다.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2016년 1190억 달러에서 2017년 1490억 달러, 2018년 1600억달러 등으로 꾸준히 늘어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대상에 올랐다. 한국 역시 지난해 기준 중국과 EU, 미국, 일본에 이어 아세안의 제5위 교역국이다.

경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아세안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를 수주하는 해외 시장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아세안 지역에서의 수주 규모는 119억2600만 달러로, 중동(92억500만 달러)보다 많았다. 미국, 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투자액은 지난해 기준 61억4200만 달러로 2014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정부는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이후 자본 집약적 상품 위주로 교역이 확대돼 경제 교류의 양과 질이 모두 향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신남방 정책을 천명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공을 들여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이 같은 노력의 중간 결산 격이 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부터 둘째 해(베트남, 싱가포르), 셋째 해인 올해(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태국, 미얀마, 라오스)까지 임기 전반 아세안 국가들과의 스킨십을 공고히 해 왔다.

한국은 본국에서 아세안과 세 차례 이상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최초의 국가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보건,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전북지역 각계 6218명 선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전북지역 각계 6,218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전북도가 최근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용범 행정부지사(위원장)가 주재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2020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2020년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비는 전년대비 65억원 증가한 1,095억원으로 가결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억원 감소한 114억으로 가결되었다.

매년 학생수가 감소함에도 무상급식비가 증액된 이유는 2년마다 200원씩 급식단가를 올리기로 교육청과 합의하였기 때문이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생수 감소로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날 보고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전북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2019 교육행정협의회 내용이 상정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산(로컬푸드)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에서 민·관·학 TF팀을 구성하는데 합의한 점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내역을, 전북도는 로컬푸드 가공식품 업체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학교급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학교급식이라는 공공영역으로 지역산 농산물 식자재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 농가를 살리고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산 먹거리를 제공하는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열악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도, 생활밀착형 SOC 사업 추진

전북도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을문화시설, 다목적회관, 기반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문화, 복지, 교통 등 기초생활 서비스를 농촌 어디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귀농·귀촌인들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읍·면 소재지의 도로, 인도,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반시설이 취약한 읍·면에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가 있다.

2020년에는 농촌개발 9개 사업 120지구에 1,142억원(국비 761, 도비 121, 시군비 259)을 투자한다. 이는 2019년보다 소폭 증가한 예산 규모이다.

전북도가 대규모 예산 투자가 가능한 사유는 민선 7기 핵심공약인 '삼락농정'의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시군과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28개 사업(854억원)이 선정되었기에 가능한 사항이다. 특히 완주군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민 자치활동과 문화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생강골 문화나눔센터, 아동 및 청소년의 야외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문화놀이공원, 문화여가 분야 전문가 교육을 위한 문화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5년간 180억원(국비 126, 도비 16 군비 38)을 투자한다.

도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으로 농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전라북도 핵심 농정시책의 하나인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국민과의 소통 시스템, 점검 필요"

靑 사회수석, 文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관련 입장 밝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20일 전날 120분 동안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성실하게 응답하고 국민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자세는 굉장히 진솔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스튜디오에 자리했던 김 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렇게 말한 뒤 "어수선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장에 있어보니 국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얘기들을 어딘가 하고 싶고, 그런 통로가 막히면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났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장내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다고 김 수석은 분석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국민과의 소통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통령 팬 미팅이었다'는 비판이 이는 데 대해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고,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큰 방향은 말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마침 국정 반환점을 넘어섰고, 청와대와 정부도 마음가짐을 다잡고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됐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과 대화에서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가 첫 질문자로 나서면서 문 대통령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해 "다른 현안도 많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런 목소리는 꼭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수석은 정시 확대로 강남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실제 객관적인 증거를 따져보면 정시가 확대되게 되면 교육 특구 생겨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보다는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자신 있다, 이건 반드시 잡겠다'고 누차 말씀을 하셨다"며 "혹시 정시 확대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강남 8학군과 같은 문제가 생겨 집값에 영향을 주게 되면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쓸 것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고 일반고 전환 정책과 관련해선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반고를 외고,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수준으로 높인다는 게 정책 방향"이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북도, 고액·상습체납자 246명 명단공개… 관련 체납액 86억원

전북도는 지방세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246명의 최종 공개명단을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전국 동시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며 관련 체납액은 86억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38명(56.1%), 52억원(60.5%)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6개월의 소명 및 납부 독려기간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49명에 9억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학장(강정원)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장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턱시양복점 건물)
(H·P : 010-2078-4810)

명강사 초청 무료 공개 특강

도민 여러분!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재미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특강에 무료로 초대합니다. 감성과 표현의 시대, 이미지시대, fun의 시대, 소통의 시대에 본 강의를 통해 재미있고 행복하며 유익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 사 : 용혜원

- 시인, 베스트셀러 작가
- 유머 자신감 연구원장
- KBS TV 아침마당 등 인기 강사
- 2009년 한국강사협회 추천 명강사
- 강의주제: "딱 한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강 사 : 김 양 옥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실기 강사
-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대표
- KBS TV 아침마당 출연 등
- 강의주제: "건강을 위한 스피치"

◎ 일 시 : 2019. 11. 21.(목) 오후 7시
◎ 장 소 : 참예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철길굴다리 앞)
(장소주소: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9, 전주완주김제축협)
◎ 문의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

한국스피치·면접·리더쉽 컨설팅
전북도내 스피치과정 원우회